

# "어떻게 만든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인데"

노동과세계 | 승인 2008.03.18 00:33

## 1987년 마창노련 노동자 대투쟁→1995년 민주노총 창립→2000년 민주노동당 출범

[사진1]

<b>◆노동자 자부심 되살린다...민주노총 조합원들 속속 민주노동당 총선지원투쟁 나서</b>

1987년 마산창원지역 노동자 대투쟁 끝에 1995년 결성된 민주노총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외치며 2000년 민주노동당을 출범시켰다. 2008년 17대 대선 이후 민주노동당은 큰 위기를 겪으며 4월 9일 제18대 총선투쟁 승리와 당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행보를 잇고 있다.

민주노총 현장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을 지키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조합원들은 민주노동당 지지선언과 집단입당, 평생당원으로 복무할 것을 결의하는가 하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단체들도 당 단결과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평생당원 100명 가입, 진주노동자 5,500명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거제시민·노동자 150명 집단입당, 전북지역 노동자 256명 집단입당, 민주연합노조 100% 당원화 결의, 민주노동당 총선재정 지원 위한 세액공제 투쟁, 민주노총 4차 정치위의 18대 총선승리 결의, 민주노총·전농·전여농·한청 등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단체들의 민주노동당 강화 결의 등이 이어지고 있다.

친재벌 부동산투기정부 등으로 혹평받는 이명박 정권이 출범초기부터 민주노총을 향해 적대적 태도를 드러냈다. 이에 맞선 민주노총은 현장조직력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민주노동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중이다.

민주노총의 진정한 주인인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 총선필승'을 외치고 있다. 민주노조 운동의 메카인 울산과 창원 등지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돌풍'이 꿈틀거린다.

[사진2]

<b>◆민주노총, 전략지역구 '울산&#8231;창원&#8231;거제&#8231;광주&#8231;경기화성' 총력지원</b>

민주노총은 울산&#8231;창원 등의 전략지역구를 중심으로 접전지역 창출과 권역별 진보벨트를 형성해 18대 총선승리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4.9총선을 맞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구 당선을 이뤄내고 전국적 접전지역을 만들어 민주노동당 총선투쟁 전선 형성에 주력한다는 방침.

민주노총 전략지역구는 노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당지지율 강세지역, 그리고 당선가능성 높은 지역과 현역의원 출마지역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선정된 18대 총선 전략지역구로는 △울산(95개노조 45,377명의 조합원) △창원(113개 20,450명의 조합원) △거제를 비롯해 광주(109개 노조 26,230명의 조합원) △경기화성(75개 노조 26,717명의 조합원) 등 모두 5개 지역이다.

민주노총 총선투쟁 필승지침이 산하 전체조직에게 통보됐다. △민주노총 전조직 3/17(월)~4/8(화)까지 23일간 일상 업무 최소화, 총선투쟁 체계 돌입 △80만 계급투표 완성 위해 단위사업장별 1조합원 1교육 실시 △상근간부, 정치·통일일꾼 중심 총선투쟁 승리 5대 실천운동 전개 △이명박 정권 등장으로 더욱 어려워진 노동현실 부각 '빨간등 운동' 대중운동 전개 △전조직 단결투쟁 총선승리 쟁취, 상반기 투쟁승리가 그것이다.

[사진4]

<b>◆1987년 마창노련 노동자 대투쟁→1995년 민주노총 결성→2000년 민주노동당 출범까지</b>

### <b><1987년></b>

마산&#8231;창원 노동자 대투쟁 끝에 1987년 12월 14일 19개 노조를 주축으로 마산&#8231;창원지역노동조합총연합(마창노련) 결성.

### <b><1988년></b>

1988년 5월 21일 노동조합 탄압저지 전국노동자공동대책협의회(전국공대협), 1988년 6월 3일 노동법개정 전국노동조합 특별위원회 결성, 1988.10.6 노동법개정 전국대표자회의 구성, 1988.12.22 전국노조단체대표자회의 개최 및 제1차 지역업종별 전국회의 확정, 1988년 12월 28일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비상조치 발동.

### <b><1989년></b>

1989년 4월 28일 마창투본 43개 노조 노동절 총파업 및 가두투쟁 전개, 1989년 11월 1일-2일 마창노련 산하 33개 노조 총파업 투쟁(군부독재와 독점재벌에 맞선 전면투쟁 선언), 1989년 12월 17일 전노협 창립 준비위원회 출범.

### <b><1990년></b>

1990년 1월 22일 전국노동자협의회 창립, 1990년 4월 25일 현중노조 전면파업 돌입, 1990년 5월 1일 전노협 총파업 투쟁(전체 노동자 생존권 수호와 노조활동 자유를 위해 5월4일까지 전국 170여 개 노조 연인원 34만명 전국 총파업투쟁 전개).

### <b><1991년></b>

1991년 2월 8일 대우조선 전면파업 돌입, 1991년 2월 10일 전노협 철야농성 돌입, 1991년 4월17일-19일 노동탄압 중지와 구속노동자 석방을 위한 전국 노조간부 철야농성 전개, 1991년 4월 26일 명지대생 강경대 백골단 쇠파이프 타살 사건 발생, 1991년 4월 27일 고 강경대 열사 폭력살인 규탄 및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구성, 1991년 5월 1일 임금인상과 물가폭등 저지 및 노동기본권 수호를 위한 전국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산하 188개 노조 95,663명 전면휴무 돌입, 1991년 5월 4일 백골단 전경해체 및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결의대회 개최(전국 20만명 참여), 1991년 5월 6일 부산 한진중공업 박창수 위원장 안기부 공작 의문사, 1991년 5월 18일 시한부 총파업 투쟁 전개(전국 81개 도시 40만명 참여 6공화국 최대 규모 가두시위 전개), 1991년 5월23일 성균관대생 김귀정 백골단 폭력진압 질식사, 1991년 6월24일 민중운동 일선대표자 결의대회(전노협, 업종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전대협).

[사진3]

[사진5]

### <b><1993년-2000년></b>

1993년 6월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 결성, 1994년 4월 20일 전노협 노총탈퇴 투쟁방침 결정(제5기 제3차 중앙위원회), 1994년 11월13일 민주노총준비위 결성, 1995년 11월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창립, 2000년 1월30일 민주노동당 출범.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kctu@nodong.org